



6

광복의 감격과 한국 육상경기의 부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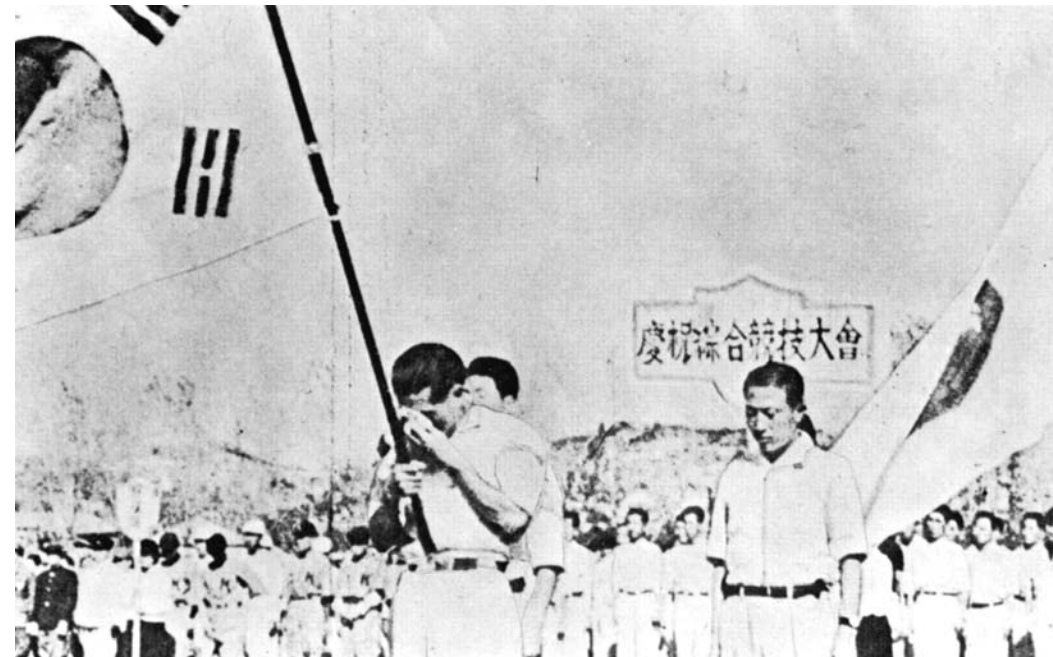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꿈에도 잊지 못하던 동포를 서울 하늘 아래에서 만나는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기 태극기를 든 선수가 손기정 선수가 아닙니까? 내가 미국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방랑의 슬픔을 맛보고 있을 때 손 선수의 마라톤 세계 제패의 소식을 듣고 민족이 아직 기개를 잃지 않고 있다고 여겨 얼마나 고무되었는지 모릅니다…….”⁰⁰¹

우남 이승만의 연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대성황을 이룬 서울운동장에 울려 퍼지자 개막식 기수로 나선 손기정은 감격의 눈물을 쏟아 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두 달, 1945년 10월 27일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는 가슴 벅찬 감격 속에 시작되었다.

⁰⁰¹ 김광희, 2001, p274.

⁰⁰² 당시 남북 체육교류는 이 대회 외에 1946년 1월 서울 창경궁 특설링크에서 열린 경평야 아이스하키경기로 시작돼 4월 두 차례의 경평 축구전, 그리고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종합농구선수권대회까지 세 차례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체육 반세기, 2002, 92p.



⁰⁰³ 1945년 10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기수로 나서 태극기를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체육동지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8년 전인 1937년 10월 제18회를 끝으로 일제에 의해 중단된 전조선종합경기대회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북한 지역 선수들도 상당수 참가해, 조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체육대회이자 한국 스포츠의 새 장을 여는 서막이었다.⁰⁰²

육상경기를 비롯한 축구, 농구, 야구, 정구 등 9개 종목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글자 그대로 광복을 만끽하는 분위기 속에서 닷새 동안 치러졌다. 이 대회 육상경기에서 1930년대 중반 ‘장거리의 왕자’로 불렸던 노장 유장춘이 5000m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듬해 1946년 광복 첫돌을 기념하여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조선체육회가 주최하고 군정청 문교부가 후원한 제1회 조선올림픽대회가 열

렸다. 한국 전 지역에서 선발된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야구, 축구, 정구, 연식 야구, 탁구, 농구, 배구, 송구, 럭비, 육상경기, 자전거, 권투, 역도, 레슬링, 체조, 기도驕道 등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종합체육경기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조선올림픽의 노래'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가 발표되었는데 태극기를 앞세우고 세계무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의 갈망이 담겨 있다. 1,2절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떨치자 세상에 우리의 의기를/퍼치자(펼치자) 세상에 우리의 슬기를/
조국의 영예를 짊어진 우리들/다리는 가볍고 맑은 짐 무겁다/보아라
젊은 조선의 모습, 우리 올림픽.

만들자 새 기록 우리의 힘으로/세우자 새 나라 우리의 단결로/싸우던
벗들과 손잡고 나가는/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사도들/보아라 젊은 조
선의 모습, 우리 올림픽. 003

제1회 조선올림픽대회 포환던지기에서 김옥자가 11m 66로 자신이 세운 종전 기록 11m 05을 경신하며 조선신기록을 작성했고, 여자 80m 허들에서 박희준이 14초 1로 종전기록을 0.3초 단축했다. 또 이 대회에서 미군과 한국 선수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칸풋볼 시범 경기를 했다.

1947년 10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제2회 조선올림픽대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달고 참가하게 될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스포츠 한국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이때부터 '체육제전'이라는 말을 사용

003 경향신문, 1946년 10월 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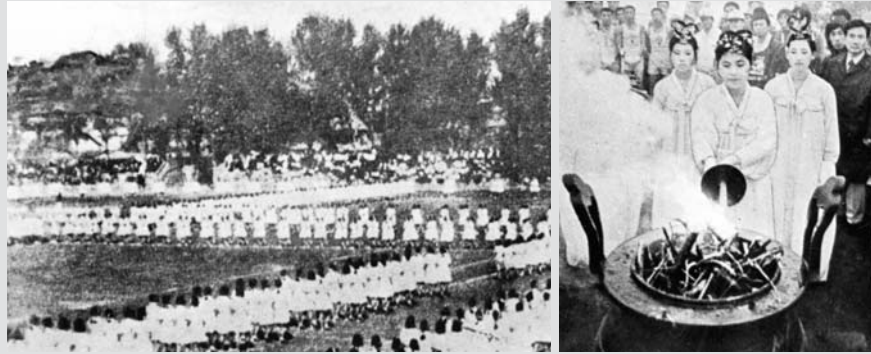
◀ 1946년 제1회 조선올림픽대회 개막식.

▶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자 육상경기, 여자 포환던지기 김옥자, 여자 단거리 경주 모습. 경향신문 1946년 10월 20일자 게재 사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육상경기에서 1개의 세계기록과 2개의 한국기록이 나왔다. 해머던지기의 1인자 인강환이 53m 44로 그해 세계최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원반던지기의 안영한이 44m 43으로 17년 만에 한국신기록, 여자 80m 허들에서 진명의 박희준이 13초 4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것. 이후 안영한은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에 38세의 노장 선수로 참가해 5위를 했고,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는 육상경기 총감독으로 참가해 당시 KBS에서 '68세 감독의 육상 외길 50년, 안영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그 밖에 제2회 조선올림픽대회에서 경북중 재학생인 19세의 최윤철이 마라톤에서 2시간 36분 37초로 1위를 했고, 200m 김인기 23초 3, 800m 허돈 2분 2초 55, 5000m 김혁진 15분 34초 5, 110m 허들 박만태 18초 5, 4×400m 릴레이 경북 3분 38초 8, 세단뛰기 김원권 14m 90, 장대높이뛰기 김동석 3m 50, 멀리뛰기 박창백 1m 75, 10종경기 오용석 등이 각 종목에서 1위를 했다. 여자부에서는 100m 장석호 13초 3, 4×100m 릴레이 이화여중 55초 2, 원반던지기 박봉식 31m 07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했다.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전국체육대회까지



- ◀ 1947년 제2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매스게임이 등장했다.
- ▶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 때 강화 마니산에서 7선녀가 성화를 채화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뒤 첫 행사로 같은 해 11월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종합경기대회로 전환한 것은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야구, 축구, 육상경기, 농구, 정구의 5개 종목 경기가 열린 1934년 제15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때부터다.

전조선종합경기대회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1945년 광복 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6회 대회에는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긴 이름이 붙었다. 육상경기 등 9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뤘는데 특히 축구 종목에 일반부 24개 팀과 중학부 22개 팀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때 중학부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1948년 제29회 대회부터 도입되었고

종전의 자유 참가제를 시도 대항제로 정착한 것은 1949년 제30회 대회부터다.

6·25전쟁의 여파로 1950년 제31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1951년 제32회 대회와 1952년 제33회 대회는 전쟁의 와중에도 각각 전라남도(광주)와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후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 순회 개최를 실시했다.

전국체육대회 전적이 제대로 정리된 것은 1952년 제33회 서울 대회부터다. 서울은 1967년 제48회 서울 대회까지 16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다 1968년 제49회 대회에서 경상북도가 서울을 제치고 종합 우승했는데, 이는 당시 체육계에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돼 봉송되는 성화는 1955년 제36회 대회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⁰⁰⁴ 당시 최종 주자는 손기정이었다.

1970년 태릉 국제수영장의 개장과 함께 제51회 대회부터 하계대회(수영·조정 경기)를 추계대회로 통합했다. 치열한 시도 간 경쟁과 함께 비대해지던 전국체육대회는 1972년 제53회 대회부터 소년체전을 신설해 초등학교부와 중학교부를 분리했다.

그러나 대회 규모는 나날이 커져 1993년 제74회 광주 대회에는 선수, 임원 등 2만 4518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 인원 외에 신문, 방송 등 취재진과 시도별로 찾아오는 관계자 등을 더하면 올림픽대회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이처럼 체전의 비대화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자 대전광역시가 개최한 제75회 대회부터는 구기종목을 중심으로 사전 예선제를 실시해 체전의 질을 높이면서 참가 인원의 감축을 시도했다.

대회 운영 방식은 남녀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각 시도의 종합득점제로 순위를 정해 종합 시상을 한다. 경기 종목별로 1~3위에게 시상을 하며 개인 및 단체 경기의 1~3위에게 금·은·동메달을 수여한다.

⁰⁰⁴ 한겨레21, 2007년 10월 19일자.

조선올림픽대회는 1945년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를 1회로 기산하여 런던 올림픽대회가 열린 해인 1948년 제3회가 아닌 제4회 대회로 표시하기로 발표했으나, 런던 올림픽대회 이후 조선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바뀌는 등 대대적인 변혁이 있는 후 대회 명칭이 전국체육대회로 바뀌었다. 제29회 전국체육대회로 한 것은 1920년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한 것이다.

1948년 제29회 전국체육대회는 새정부 수립 경축 경기대회를 겸하였는데 육상경기에서 엄팔용이 남자 400m를 50초 9로 주파해 해방후최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조선체육회의 재건

1945년 조국의 광복은 절망에 빠져 있던 체육계를 다시 소생시켰다. 조선체육회가 해산된 지 7년, 전쟁에 광분한 일제의 횡포로 황폐해진 우리 체육계에 봄이 찾아왔다. 발 빠르게 움직인 체육인들은 해산된 조선체육회의 재건을 서둘렀다. 광복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한국 스포츠의 요람인 종로YMCA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체육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었다.

이들 가운데 일본 농구의 창설 주역으로 활약하던 이상백이 있었다. 그는 흩어진 동지들을 모아 가칭 '조선체육동지회'를 조직하고 경기 활동을 통해 체육회 재건의 기치를 들었다. '씩씩한 정신과 몸을 만들어 신생 민주국가에 이바지할 것' 등을 목적으로 발족된 조선체육동지회는 농구, 축구 등 급조한 팀으로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 스포츠 재건의 당위성을 알려 나갔다.

특히 같은 해 10월 6일 벌어진 서울시 일주 마라톤은 동지회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홍보 효과를 내면서 체육회 재건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를 토대로 조선체육동지회는 앞에서 소개한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를 주최해



몽양 여운형이 1945년 8월 16일 광복 직후 서울 휘문고 교정에서 광복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 그는 그해 11월 제1대 조선체육회 회장에 선출됐다.

광복 후 첫 전국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를 거행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 대회가 끝나고 한 달 뒤인 1945년 11월 26일 조선체육동지회 체육인들은 YMCA회관에서 광복 전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자 조선체육회 이사를 역임한 몽양 여운형을 제11대 조선체육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으로는 해방 전 조선체육회장을 수차례 역임하고 미 군정청 문교부장에 취임한 유억겸과 중국 축구 대표선수로 활약하다 상하이에서 귀국한 신국권이 뽑혔다.

체육회 재건에 동분서주한 이상백은 이사로 선임됐다. 여운형과 이상백 두 사람의 관계는 1940년 여운형이 일본에 초청받아 갔을 때 이상백이 고노에 전 총리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후 1944년 이상백이 건국동맹에 가입해 기획처 간부로 일하면서 두 사람은 동지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농구의 이성구, 여운형의 아들 홍구와 양정 동창인 손기정, 역도의 김성집 그리고 이상백 등이 결집했다. 1934년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 기념 전조선종합경기대회에 '노동老童육상 경기'라는 종목이 추가됐는데, 이는 청장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다. 마흔아홉 살인 여운형이 1935년 대회에 참가해 포환던지기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조선체육회 재건 움직임과 함께 각 경기단체의 결성 준비도 속도를 냈다. 조

선체육회 재건에 앞서 1945년 9월 23일 조선육상경기연맹(현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조직돼 체육계의 독립을 이끌었다. 조선육상경기연맹은 1945년 10월 20일 국제아마추어육상경기연맹IAAF에 가맹했고 1945년 11월 26일 조선체육회에 가맹했다. 1946년 1월 8일 조선통신 사장 김승식이 조선육상경기연맹 초대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이 연맹은 대한민국의 육상경기를 대표하는 단체로, 아마추어 육상경기를 널리 보급해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선수를 양성해 국위 선양을 도모하며 국채 친선에 기여함을 목표로 삼았다. 조선육상경기연맹은 1945년 12월 23일 일요일에 서울 시청 앞에서 한강다리까지 왕복 7마일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임시정부 환영'을 내건 이 대회에 일반 8개 단체와 5개 중학교가 참가해 아스레택구락부의 김혁진이 46분 38초로 1위, 같은 클럽의 서운화가 46분 44초로 2위, 보성전문의 이영제가 48분 08초로 3위를 했다. 김혁진은 1956년 올림픽 대회 파견 육상경기 감독에 임명되었다. 이 대회는 이듬해 11월 제2회 해외혁명투사환국기념 단축마라톤대회라는 명칭으로 같은 코스에서 개최되었다.

1946년 8월 20일 손기정·남승룡 선수 마라톤 세계 제패 10주년을 기념해 광화문 동아일보사에서 노량진 간 왕복 경축 마라톤대회를 열었다. 8월 18일에는 조선육상경기연맹 주최 해방경축기념 육상경기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다. 9월 20일에는 조선육상경기연맹 주최로 각도대항육상경기대회가 열렸는데 종목은 100m, 200m 400m, 1500m, 5000m,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1500m 릴레이 등이었다.

그 밖에 조선육상경기연맹은 조선 주둔 미군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6월 제1회 조미朝美대항육상경기대회를 열었다. 종합 전적에서 조선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특히 해머던지기에서 인강환이 49m 01로 조선신기록을 세웠고 2위는 백승욱, 3위 안영식이었다.

1947년 조선육상경기연맹이 발표한 사업계획을 보면 3월 전국중등학교서울

~수원 간 역전경주대회, 4월 서울~인천 간 역전경주대회, 5월 특수종목기록회, 6월 전국선수권경기대회, 7월 일반대對학생대항경기대회, 8월 해방경축경기대회, 9월 제2차 올림픽대회후보선수전형경기대회, 10월 각도대항경기대회, 11월 서울~춘천 간 역전경주대회와 해외혁명투사 귀환기념 단축마라톤경주대회 등 매달 쉬지 않고 대회가 열렸다. 조선육상경기연맹은 1947년부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도 시작했다. 하기夏期합동연습단 39명은 정환범을 단장으로 손기정 등 8명의 지도를 받으며, 개성에 있는 송도인삼장에서 20일간 훈련을 했다.

조선육상경기연맹은 1946년 2월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을 조직하고 연간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3월 전문대학역전경기대회, 5월 전국남녀중등학교학년별대항육상경기대회, 6월 서울북 보스턴마라톤 제패 축하 겸 전국전문대학대항육상경기대회, 7월 여자중등대항육상경기대회, 9월 제1회 전국학도선수권대회의 개최 일정이 잡혀 있었다. 9월에는 조선소년체육협회 주최로 제1회 전국소년소녀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조선육상경기연맹 내 아스레택구락부라는 육상경기클럽 주최로 1946년 3월 3일 독립선언기념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김은배, 권태하, 손기정, 남승룡 등이 1946년 8월 9일(손기정 세계 마라톤 제패 기념일) '조선마라톤보급회'라는 조직을 발족했다. 위원장 권태하, 총무 김은배, 지도자 손기정·남승룡으로 출발한 이 단체는 해방된 조국에서 마라톤을 재건하기 위한 모임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은 1947년 10월 추계육상경기남녀중등학교대항경대학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이 무렵 이화여대에 체육학과가 만들어졌다.

2

광복 후 첫 올림픽대회 준비

광복 후 재건된 조선체육회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 무대에 태극기를 들고 참가하는 것이었다.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이 말해 주듯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특히 올림픽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조선 청년들의 최고 소원이었다.

광복 이후 정국은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혼돈 그 자체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범국민적 중심점이 필요했다. 올림픽대회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체육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열리는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우선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려면 국내 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여기에는 올림픽 종목 5개 이상의 경기단체가 국제경기연맹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다. 조선체육회는 우선 국내 올림픽위원회를 구성해 IOC의 승인을 얻는 작업에 착수했다.

1946년 7월 조선체육회는 전 단계로 런던 올림픽대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선체육회 부회장인 유억겸, 부위원장에 이상백과 전경무를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올림픽대회 종목의 경기단체들이 국제경기연맹에 가입



이원순(왼쪽)과 유억겸. 이들은 광복 후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미국에서 돌아와 올림픽대회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았던 전경무.

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육상경기, 수영, 축구, 농구, 역도, 복싱, 레슬링 등의 경기단체들로 하여금 국제경기연맹 가입 절차를 밟도록 했다. 당시 한국의 올림픽대회 참가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1946년 겨울 유억겸 조선체육회 부회장 겸 군정청 문교부장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모든 국제 질서가 아직도 정돈 과정에 있고, 종전 강화회의가 전제로 종결을 보지 못한 관계로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의 조직위원회도 그 여파에 따라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모양이므로 우리는 출전하게 될 것으로 믿고 부단한 준비와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정식 결정을 기다려 비로소 준비 착수를 하기에는 앞으로 시일이 없는 때문이요, 또 준비하고 연습을 쌓아두는 것은 이른바 '밑져야 본전'이라는 속담 그대로다.⁰⁰⁵

005 동아일보, 1946년 12월 29일자.

신생 한국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재미교포 전경무 씨가 해결사로 나섰다. 평안북도 광산 출신인 그는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하와이로 건너갔고 시카고 미시간대 정치학부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미식축구선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졸업 후에는 워싱턴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11월 귀국하여 올림픽대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았다.

1947년 5월 9일 조선체육회 산하 단체가 YMCA체육관에 모여 여운형, 유억겸, 전경무, 이상백, 정환범, 하경덕, 이병학, 이법용, 민원식 9명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5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선체육회 장·부회장이 겸하기로 하고, 6월 15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제40차 IOC 총회에는 전경무를 파견하기로 했다.

1947년 봄 전경무는 당시 미국의 에이버리 브런디지 IOC부위원장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 약속을 받아 냈다. 또 브런디지의 권고로 같은 해 6월 1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제40차 IOC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회 참석차 5월 29일 미 군용기 편으로 장도에 오른 전경무는 도쿄 인근 아쓰키 비행장을 뒤덮은 짙은 안개로 비행기가 추락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인 1947년 6월 초, 임시정부에서 워싱턴 주재 구미(歐美)위원을 역임한 이원순은 뉴욕에서 미 군정청 하지 장군의 전보를 받았다. 내용은 전경무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으니 그의 임무를 이원순이 대신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체육회 회장이던 여운형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

전경무의 오랜 친구인 이원순은 전경무가 브런디지를 만나 한국의 IOC 가입을 부탁할 당시 동행한 바 있다. 총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랴부랴 스톡홀름으로 날아간 이원순은 IOC총회에서 현장 준수에 대한 서약과 함께 우리나라의 IOC 가입을 거듭 요청했다. 당시 한국을 '코리아KOREA'로 표기해서 올림픽위원회의 약자를 KOC(초대 위원장 여운형)로 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당시 KOC는 조선올림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창설돼 훗날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KOC는 한반도 전체를 올림픽 사업의 관할 아래 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더불어 남북 분단 상황에서 코리아의 표기는 북한 지역까지 관장지역으로 못 박아 올림픽대회에 관한 한 KOC의 절대 우선권이 주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KOC는 1947년 6월 20일자로 IOC의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⁰⁰⁶

IOC 역사상 국가 성립 이전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승인된 것은 KOC가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이후 조선체육회는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를 목표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1947년 7월 1일 유억겸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올림픽대회 파견 종목으로 육상경기, 축구, 농구, 역도, 복싱 등에 이어 레슬링과 자전거(사이클)가 추가됐다. 그러다 7월 19일 조선체육회의 총수인 여운형이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체육 행정이 마비됐으나 그해 9월 유억겸이 체육회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억겸이 취임 50여 일 만인 11월 8일 고혈압으로 쓰러져 운명하고 만다. 광복 이후 체육계 재건의 주역들이 차례로 사라지는 불운을 겪은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남짓 지난 12월 2일, 광복 전 조선체육회 창립의 산파 역을 맡았던 장덕수 한민당 정치부장이 저격을 받고 쓰러졌다.

여운형과 장덕수가 테러로 희생됐고, 전경무는 비행기 사고, 유억겸은 지병으로 급서하는 등 한 해에 체육회와 인연이 있는 지도자 4명이 희생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47년 한 해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⁰⁰⁶ 김광희(2001), p282~290 참조.

3

한국 마라톤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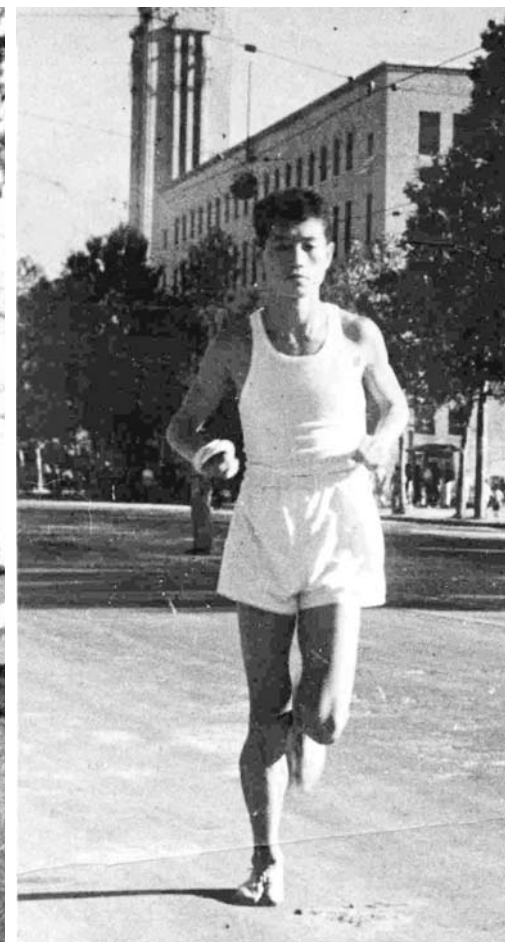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육상경기 후진국이다. 단거리, 중거리, 1만m 장거리, 도약, 던지기, 정보 등에서 단 한 개의 올림픽 메달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딴 적이 없다. 하지만 마라톤은 다르다. 지금껏 마라톤은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그리고 4위를 두 차례 했다. 더욱이 가장 역사가 깊은 미국 보스턴마라톤에서도 세 차례나 우승한 전력을 자랑한다.

광복 이후 마라톤은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특정 사건을 경축 또는 기념하는 수많은 로드레이스 대회가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1945년 12월 23일 조선육상경기연맹은 임시정부 환영 동계단축마라톤대회를 열었고, 1946년 3월 3일에는 기미독립선언을 기념하여 아스레택구락부(육상경기클럽)가 제2회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1946년 8월 20일 동아일보 주최, 문교부와 조선육상경기연맹 후원으로 손기정·남승룡 세계 제패 10주년 기념 경축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노량진 왕복 코스로 반환점을 돌 때만 해도 김혁진이 선두이고 서윤복과 엄재호가 2,3위로 달렸으나 마지막 스퍼트에서 서윤복이 선두로 치고 나와



사진 : 강형구 제공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후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고 있는 손기정. 함기용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갈라진 운동화를 신고 있다. 손기정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이런 운동화를 신고 달렸다(오른쪽).

결국 1위를 했다. 당시 재동초등학교 6학년인 13세의 정성화 군이 코스를 완주해 조선 마라톤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그해 9월 22일 손기정 마라톤 제패 1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청년회 주최로 개성에서 판문교 왕복 마라톤대회가 열렸고, 10월에 열린 조선올림픽대회(제27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에서는 서윤복이 2시간 39분 40초로 1위를 했다.

10월 27일에는 조선마라톤보급회 주최로 조선일보사 앞~우이동 왕복 코스를 달리는 단축마라톤대회가 열렸고, 11월 2,3 양일에는 대한독립신문 주최 경춘역전경기대회, 11월 29일에는 조선육상경기연맹 주최 제2회 해외혁명투사 환

국기념 단축마라톤대회가 서울 시청~노량진 왕복 코스에서 열렸다. 1947년 3월 9일 조선일보 주최 제2회 전국중등학교 서울~수원 간 역전마라톤에서는 강원중학이 6시간 8분 57초로 전년 기록을 15분 가까이 앞당기며 우승을 했다.

손기정, 서윤복, 남승룡 비행기를 타다

1947년 초, 조선육상경기연맹에 초청장이 날아들었다.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베를린 올림픽대회 1, 3위를 한 선수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수 선수를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1940년과 1944년 올림픽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가장 최근 올림픽대회 마라톤 입상자는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때의 손기정과 남승룡이었다. 그 무렵 손기정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사관 미국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존 켈리로부터 한 장의 엽서를 받았다.

베를린 대회 당시 켈리는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할 때 신었던 엄지발가락 부분이 다른 발가락들과 갈라진 일본식 운동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자 손기정은 그 신발 한 켤레를 켈리에게 선물로 줬다. 손기정이 켈리로부터 받은 엽서에는 ‘그 신발을 신고 1945년 보스턴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적혀 있었다. 손기정은 켈리의 엽서 덕에 보스턴마라톤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보스턴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서윤복과 함기용이다. 서윤복은 1923년 서울 출생으로 승문중학(5년제) 때부터 장거리 유망주였다. 1946년만 해도 5월 전국마라톤대회 우승, 9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마라톤 우승, 10월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우승이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둬 한국 육상경기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들은 서울 돈암동 손기정의 집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훈련을 했다.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대회 우승 당시 시상대에서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당시의 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집 마당 구석에 세워진 기둥에 태극기를 올렸다.

이 때문에 당시 선수들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면 기둥에 태극기부터 올리고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연습에 임했다. 그러나 시끄럽다는 동네 주민들의 항의로 얼마 가지 않아 중단해야 했다. 그만큼 이들에게 마라톤은 곧 조국이었다.

손기정 일행이 보스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부랴부랴 참가를 준비하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이었으니 당시엔 정부라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과는 달리 육상경기연맹이나 체육회가 뒷받침을 할 형편이 안 돼 참가 비용을 선수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손기정이 감독을 맡고 신에 서윤복, 노장 남승룡 등 두 선수로 이뤄진 한국 선수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미 군정청의 스메틀라 여사가 300달러를 내놓았다. 여기에 미 군정청 장교들이 주머니를 털어 1500달러를 여비에 보냈다. 러치 미 군정청 장관도 1500달러를 건넸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였다.

우여곡절 끝에 미 군정청 문교부의 허락을 받고 또 군정청 직원들이 모금해 준 여비까지 챙겨 장도에 오른 손기정, 남승룡, 서윤복 등 세 사람의 여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고 한 편의 코믹 로드무비였다.⁰⁰⁷ 이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선수를 해외에 처음 파견한 일이기도 했다.

1947년 4월 8일, 보스턴 공항의 한 국내선 항공기에서 남루한 차림의 동양인 세 사람이 나타났다. 트랩을 내려오던 이들은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들 세 사람은 다름 아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과 동메달리스트 남승룡 그리고 신에 서윤

⁰⁰⁷ 보스턴마라톤으로의 여정은, 정희준, 2009, p55~59; 고두현 2008, p160~161; 김광희 2001, p291~292 등 참조.

복 등 한국 마라톤 선수단이었다.

그 이름만으로는 취재 대상이었지만 이들의 행색이 너무 초라한 나머지 기자들이 던진 첫 질문은 황당하게도 “아니 양복이 왜 그 모양입니까?”였다. 마침 마중 나온 보스턴 교민 백남용이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 구겨진 것”이라고 둘러대며 우리 선수단을 끌다시피 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장도에 오른 손기정 일행은 미 군정청이 주선한 군용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들이 보스턴으로 가려면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로 갈아타야만 했다. 그런데 손기정 일행은 다른 승객이나 군인들이 다 내리고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륙 전 승무원이 매어 준 안전벨트를 도무지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엔 가지고 간 쌀자루와 고추장이 손기정 일행의 발목을 잡았다. 그들의 힘의 원천이자 승리를 담보하는 비장의 음식을 세관에 몽땅 빼앗겨 버린 것이다.

미 군정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도 큰 걸림돌이었다. 그 증명서는 미 태평양 점령군사령부가 발행했기에 사령부의 관할 영역인 호놀룰루까지만 통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가려면 다른 증명서가 필요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마라톤 선수단은 하와이에 사는 민씨 성을 가진 한국인 목사의 집에서 사흘을 묵어야 했다. 발이 묶인 답답한 신세였음에도 남승룡과 서윤복은 이내 호놀룰루 시내로 연습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남승룡과 서윤복이 돌아오지 않자 민 목사 집에서 기다리던 손기정은 애가 탔다. 그도 길을 나섰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기정마저 길을 잃고 말았다.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찾아 헤매다 모두 미아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민 목사가 경찰에 신고해서야 이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날벼락 같은 호놀룰루 일정을 마친 우리 선수단은 시장의 배려로 쌀과 고추장을 돌려받

고 샌프란시스코행 군용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보스턴으로의 여정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들을 샌프란시스코 군비행장 활주로에 내려 준 군용기는 황량한 도로를 달리는 버스처럼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횡하니 떠나 버렸다. 세 사람은 이역만리 밀밭으로 둘러싸인 활주로에 짐과 함께 그렇게 버려졌다. 그래도 운은 있었나 보다.

서윤복이 마침 지나가는 지프 한 대를 발견하고는 도로에 뛰어들어 세웠다. 운 좋게도 차에서 내린 미군은 부평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중사였다. 그는 세 사람을 자기 막사로 데려가 재워 주고는 이튿날 샌프란시스코 민간 비행장까지 안내해 줬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면 됐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다. 비행기에 남은 자리가 둘밖에 없으니 한 명은 다음 비행기를 타라는 것이었다. 우리 선수단은 함께 가야 한다고 떼를 썼지만 항공사 직원은 막무가내로 손기정과 남승룡만 밀어 넣고 짐까지 실어 버렸다.

30대 중반을 넘긴 손기정과 남승룡은 그래도 외국 경험이 있었다. 그렇지 못한 스물다섯의 서윤복은 온통 울상이었다. 그 모습을 본 손기정과 남승룡은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 서윤복과 함께 버렸다. 마침내 한 신사의 양보를 얻어내 세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마라톤 선수단은 1947년 4월 3일 서울을 출발해 6일간의 영화와도 같은 여정 끝에 보스턴에 도착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한 명은 풋내기, 다른 한 명은 11년 전 올림픽 동메달 외엔 내세울 것이 없는 한물간 마라토너. 아무도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보스턴마라톤대회 역사

1775년 4월 19일 영국군은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왔다. 이에 아메리카 이주민들은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웠다.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 주와 메인 주는 이날을 '애국자의 날'로 정하고 각종 기념 행사를 열었다. 그러던 중 윌슨 보스턴체육협회 회장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 올림픽대회를 참관하고 마라톤 경기에 크게 감동하면서 애국자의 날 행사에 마라톤을 추가하도록 주선했다.

이를 계기로 보스턴마라톤대회는 1897년 제1회 대회 이후 해마다 애국기념일(원래는 4월 19일, 1969년부터는 4월 세 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1918년 대회는 중지됐으나 그 후 1949년 대회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최는 처음부터 보스턴육상경기클럽이 하고 1925년부터 미국선수권대회를 겸한다.⁰⁰⁸ 뉴욕, 런던, 베를린, 시카고와 함께 세계 5대 마라톤대회로 일컬어지며 올림픽 마라톤 다음으로 오래된 세계적인 마라톤대회다. 코스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홉킨턴에서부터 보스턴의 백베이까지 42.195km 구간에서 벌어진다.

1957년 정밀 측정한 결과, 코스의 정규거리가 1000m 이상 부족한 것으로 판명돼 그해 대회부터 재조정되었다. 특히 코스 가운데 32km 지점은 '상심의 언덕 Heartbreak Hill'으로 유명하다. 상심의 언덕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보스턴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1908~2004) 때문. 그는 1928년 20세부터 1992년 84세까지 무려 61번이나 참가해 58회 완주했다. 켈리는 1935년, 1945년 두 차례 우승했으며, 준우승 7회, 톱 10 18회를 기록했고 마지막 완주기록은 5시간 58분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예선에 미국대표로 참가해 18위로 들어왔다. 켈리는 완주한 뒤 우승자 손기정에게 "당신이 신고 달린 엄지발가락과 다른 발가락이 갈라진 신발을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해 손기정은 그에게 신발을 선물했다고 한다.

⁰⁰⁸ 두산백과사전 참조.



▲ 보스턴마라톤대회 레이스 초반 선두에 선 엘리트 선수와 그 뒤를 잇는 마스터스 참가자들의 모습.

▼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이후 70년 넘게 우정을 나누는 존 켈리(가운데)와 손기정 선수(오른쪽). 왼쪽은 중국 선수였던 왕정린.

1936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전 대회 우승자인 켈리는 선두를 달렸지만 바로 상심의 언덕에서 엘리스 브라운에게 추월당했다. 그러자 켈리는 낙심천만한 표정을 지으며 뒤쳐졌고 결국 5위로 들어왔다. 당시 이를 취재했던 보스턴글로벌지 기자가 신문에 '켈리를 상심시키다 Breaking kelley's heart'라는 기사를 썼고, 이후 이곳은 '상심의 언덕'으로 불렸다. 국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겐 '심장파열의 언덕'으로 불릴 만큼 몸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시점에 가파르게 버티고 있다. 30m의 높이에 약 500m가량 오르막이 이어진다.

광복 후 서윤복 첫 국제대회 우승

보스턴마라톤대회는 1960년 참가 선수가 200여 명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들어선 세계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다. 클래런스 드마르(1922~1924)와 빌 로저스(1978~1980)는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다. 1972년 이 대회에서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선수의 참가를 허용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연이 적지 않았다. 1966년 제70회 보스턴마라톤에 캘리포니아 출신의 23세 여성 로베르타 보비 김이 참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김은 번호표 없이 출장을 감행해 참가자 500여 명 중 126위를 했다. 그녀의 기록은 3시간 21분 40.

비공식적이었지만 여자 마라톤의 시초 격인 이 사건은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7년 같은 대회에서 이름을 숨기기 위해 이니셜 'K'로 참여한 카트린이라는 여자 선수가 레이스 도중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⁰⁰⁹ 심판이 카트린의 선수표를 회수하려 하자 그녀를 에워싸며 함께 달리던 남성들과 몸싸움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화제가 돼 여성에게도 마라톤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1971년부터 뉴욕마라톤에서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자 보스턴마라톤도 1972년부터 여자부를 신설했다. 이어 1981년 IOC 이사회에서 1984년 LA 올림픽대회부터 여자마라톤을 육상경기 정식 종목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966년 보스턴마라톤에서 여성 마라토너가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처음 참가한 이후 15년 만의 일이었다.

보스턴마라톤은 올림픽대회를 제외하고 1997년부터 유일하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대회다. 해마다 참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개 공인 마라톤대회에서 완주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3시간 이내의 기록 보유자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인원도 1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마라톤 애호가들은 보스턴마라톤에 참가했다는 사실 자체를 큰 영광으로 여긴다.

⁰⁰⁹ 유귀훈, 2004, Part 6 여자마라톤의 시작 중에서.

1947년 4월 19일 미국,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159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가 개막되었다. 당시 세계기록을 갖고 있는 핀란드의 피터넨, 전년도 우승자인 그리스의 카이라, 이 대회 베테랑으로 세 차례 우승 경력을 지닌 캐나다의 코티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었다.

당시 서른다섯 살의 남승룡이 현역으로 뛰기에는 무리가 따랐지만 신예 서윤복의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했다. 태평양전쟁의 격랑 속에 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에 접어든 서윤복은 홀로 스포츠 역량을 키워 나간 인물이다. 그는 원래 중·장거리 선수였지만 1946년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가 주최한 한국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39분 30초로 우승했다. 기록은 저조했지만 2위와의 차가 15분이나 됐고 레이스 전개가 좋아서 손기정을 비롯한 마라톤 관계자들의 눈을 끌었다. 이에 권태하, 손기정 등이 중심이 된 조선마라톤보급회는 서윤복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훈련을 시켰다. 서윤복은 보스턴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이르러 국내에선 경쟁 상대가 없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해 있었다.

“피터넨을 놓쳐선 안 된다”

보스턴마라톤대회는 홉킨턴이라는 시 근교로부터 42.195km를 달려 보스턴 시체육회에 이르는 직선 편도 코스에서 펼쳐졌다.⁰¹⁰ 이날 정오 홉킨턴을 출발한 건각들은 보스턴 시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4월 치고 기온은 낮았다.

레이스에 앞서 손기정 감독이 세운 전략은 이랬다. ‘서윤복은 전반에는 선두 그룹의 동정을 살피면서 필요하면 당장 따라붙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달리다가 마지막 5마일을 남기고 앞선 선수들을 잡아 우승을 노린다. 남승룡은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고 달리며 경우에 따라 상위 입상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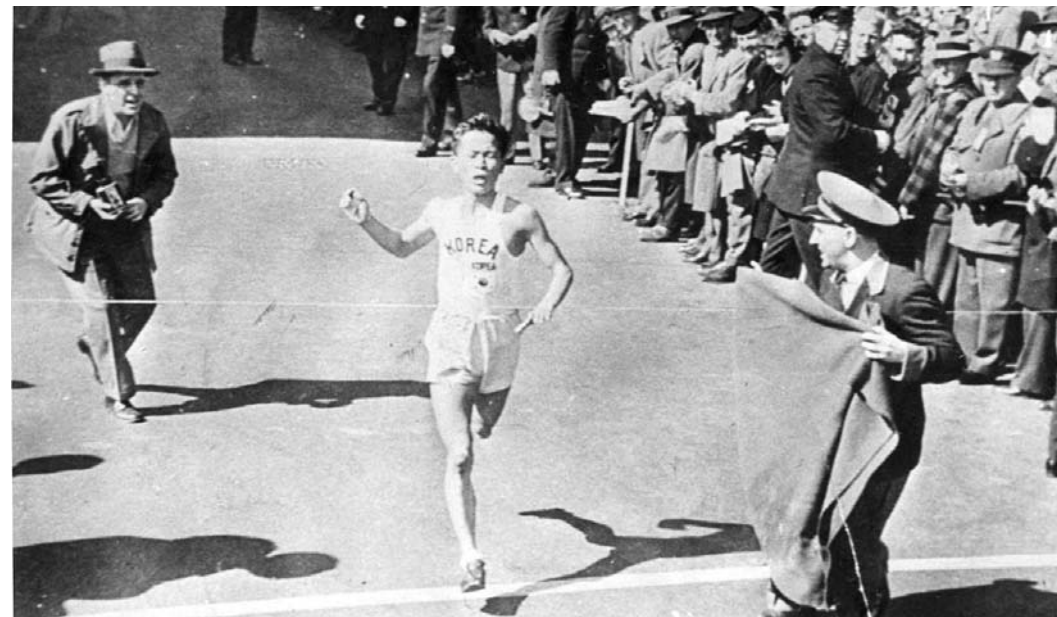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는 서윤복에게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피터넨을 놓치지 마라.”고 당부했다. 차분한 성격의 서윤복은 레이스 초반에는 후미에 처져 대세를 관망하듯 신중을 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평소 착실한 연습으로 기량을 축적하고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 왔다.

가장 뒤쪽 그룹에 끼여 달리기 시작한 서윤복은 5마일 지점에서 약 60위로 달리다 서서히 스피드를 올리면서 10마일쯤에서 20위로 나섰다. 13마일 부근에 이르자 5, 6명의 선수들이 한 집단을 이루면서 달리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선두 그룹 속에는 우승 후보인 피터넨도 있었다. 서윤복은 어렵지 않게 그를 따라잡고 옆에 바짝 붙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터넨이 갑자기 스피드를 올리더니 선두 그룹을 빠져나가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순간 서윤복도 속도를 냈다. “피터넨을 놓쳐선 안 된다.”라는 손기정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둘은 서로를 의식하며 앞을 다투는 경쟁을 10여 분이나 계

⁰¹⁰ 보스턴마라톤 레이스와 이후 상황은 김광희, 2001, p293~300; 고두현, 2008, p162~164; 정희준, 2009, p58~59 등 참조.



서윤복은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25분 39초를 기록하며 1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속했다. 스피드를 내며 빠져나가려 한 피터넨은 서윤복이 만만히 볼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정상 레이스로 페이스를 바꿨다.

서윤복과 피터넨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전체 코스 3분 2 지점의 난코스인 ‘상심의 언덕’에 다다랐다. 서윤복은 어린 시절 서울 인왕산 바위 사이를 누비며 놀아 크로스컨트리에서나 마라톤에서도 언덕 넘기를 부담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서윤복은 피터넨을 뿌리칠 기회가 온 것을 직감하고 페이스를 올려 독주 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터넨을 따돌리고 우승을 향해 달리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쳤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짖으며 달려든 것이다. 위험을 느낀 서윤복은 달리다 말고 오른발로 그 개를 걷어찼다. 개는 비명을 지르고 달아났지만 그 바람에 그는 균형을 잃고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18마일을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에서 우승한 서윤복(오른쪽)과 우리 선수단이 인천항에 개선하고 있다.

달려 피곤한 몸이 일단 무너지자 서윤복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는 사이 뒤쳐져 있던 피터넨이 보란 듯 앞질러 나갔다. 다시 부리나케 쫓아갔지만 이번엔 서윤복의 오른쪽 신발 끈이 풀려 너털거렸다. 멈춰서 풀린 신발 끈을 다시 맬 시간적 여유는 물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서윤복은 길 옆에서 응원하던 관중에게서 물잔을 받아 그대로 신발 끈에 물을 부었다. 다행히 물로 붙어난 신발 끈은 더 이상 풀리지 않았고 서윤복은 그냥 내달렸다. 30m 전방에 피터넨이 보였다. 어깨는 처지고 몸놀림이 둔해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스턴 시내에 진입할 무렵, 조그마한 언덕이 보였다. 서윤복은 바로 여기가 승부처라고 판단하고 있는 힘을 다해 언덕에서 버거운 라이벌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남은 5마일은 길 양편으로 장막을 치듯 늘어선 사람들 한가운데를 개선장군

처럼 달리는 것뿐이었다. 우승은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윤복은 그대로 선두를 지킨 채 피니시라인으로 뛰어 들었다.

광복 후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

서윤복의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은 조선의 독립만큼이나 쉽지 않았고 그만큼 감격적이었다. 게다가 광복 후 한국이 국제대회에 참가해 거둔 첫 우승이었다. 처음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한국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남승룡 역시 역주 끝에 12번째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서윤복과 남승룡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서윤복의 기록은 2시간 25분 39초. 1947년에 작성된 마라톤 최고기록이었다. 하지만 1957년 보스턴마라톤 코스를 다시 측정한 결과, 정규 코스보다 길이가 1086m나 짧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이전 기록은 공인 받지 못했다.

기록이야 어쨌든 서윤복의 보스턴마라톤 제패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갖은 시련을 겪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준 쾌거였다. 무척이나 낮은 조그마한 한국의 청년이 놀랄 만한 기록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파를 타고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한국의 언론들은 4월 19일 이른 아침에 호외로 이 소식을 전했다.

당시 유엔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던 임영신(초대 상공부 장관)은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넓혔으며 현지 언론을 동원해 서윤복이 외교관 100명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고 극찬했다. 우리 선수단은 약 2개월을 미국에 체류한 뒤 귀국을 서둘렀다.

임영신 장관의 주선으로 준비를 끝낸 선수단의 귀국 보따리에는 빨랫비누, 그릇, 라이터 등 집에 가져 갈 선물들이 가득했다. 서윤복은 일제 때 총독부가 낫그릇까지 빼앗아 가는 바람에 집에 변변한 그릇이 없다 해서 알루미늄 그릇을



제2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한 정환범.

구했고 빨랫비누를 샀다. 어머니가 옷가지를 양젓물에 삶아 빠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 빨랫비누를 실어 가져왔다. 당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여름까지 동네사람들과 넉넉히 나눠 썼다고 한다.

18일간 배를 타고 귀국한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금의환향이었다. 일행은 요코하마를 거쳐 며칠을 지체하다 6월 22일 인천항에 개선했다. 서운복과 우리 선수단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서울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중앙청 앞뜰에 마련된 환영식장에는 조선체육회장 여운형과 임시정부 측의 김규식, 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대 회장 정환범 등이 나와 선수단을 반겼다.

며칠 후 자랑스러운 선후배 마라토너들은 경교장으로 가서 민족 지도자인 김구를 방문했다. 그는 손기정과 남승룡이 베를린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던 일을 회상하고 그때의 한을 풀었다며 서운복의 건투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는 발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뜻의 ‘족패천하(足霸天下)’ 휘호를 그에게 건넸다. 이 휘호는

서운복이 가보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의 와중에 잃어 버려 아쉬움을 남겼다.⁰¹¹

보스턴마라톤 제패 후 국내 마라톤 열기는 더욱 고조됐고 각종 대회가 줄을 이었다. 6월 7일에는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로 서운복 제패 축하 겸 제2회 전국전문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가 열렸고, 7월 28일 조선체육회·조선육상경기연맹·서울시 공동 주최로 보스턴마라톤 선수단 환영 행사에 이어 서운복 선수가 직접 뒀던 5마일 로드레이스가 펼쳐졌다.

8월 9일에는 조선마라톤보급회와 체육신문사 공동 주최로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제패 기념 제1회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보스턴마라톤 우승컵을 수여하고 매년 다음 우승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도입했다. 첫 대회는 조선일보사 앞~오류동 왕복 코스에서 치러졌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이라 기록은 저조했다. 2시간 57분 20초로 1위를 한 홍종오는 서운복 등과 함께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 후보를 대상으로 조선마라톤보급회가 마련한 합숙 훈련(손기정의 집이 합숙소로 총 8명의 선수가 선발됐음)에 참가하게 되었다.

1947년 10월 조선올림픽대회(제28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에서 최윤철이 2시간 36분 37초로 광복 후 첫 한국신기록을 세워 ‘마라톤 한국’의 개가를 올렸다.

011 김광희, 2001, p303 인용.